

광주 문화기관 수장 인사...교체냐 유임이나 '촉각'

문화재단 대표 등 9월 임기만료
이용섭 시장 후반기 첫 인사 관심
문화계 특정한 내정설 등 무성
관광재단 초대대표는 재공모

여 자격이 있다. 그러나 문화계 인사는 "연임은 이사회를 거쳐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사추천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대 표의사의 연임이 불가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현재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오레 전부터 A 씨의 내정설이 흘러나오는 등 하마평도 무성하다. 그러나 지역 문화를 견인하고 컨트롤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문화계 수장의 인선이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모 절차가 요시행위에 그치면 지역 문화계가 자칫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의 임기도 오는 9월까지다. 전 관장은 지난 2018년 9월 이용섭 시장의 '혁신 1호 인사'로 선임됐다. 당시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응모를 했고 그 가운데서 혁신 인사로 선임된 만큼, 향후 임기 연장에 일정 부분 무게가 실린다. 만약 연장이 무산될 경우 공모 절차를 도입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절차 진행은 시간상 촉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7월 설립을 목표로 초대 대표 공모에 들어간 광주관광재단은 한차례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등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난 10일 응모서류 접수 마감하고 14일부터 서류심사에 들어간다.

관광재단은 광주시 출연기관으로 지역 관광의 경쟁력 향상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다. 지역 관광자원을 토대로 도시형 관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대 대표의 역할은 무엇보다 막중하다. 이번 초대 대표 후보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후보자 2인을 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을 든 유족들이 13일 오후 경남 창원군 박 시장 생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장에 추천, 최종적으로 시장이 1명을 임명하며 시의회의 청문회 절차는 없다. 광주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가능한 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7월 안에 관광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이번에도 초대 대표 적임자가 없다면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선정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임기는 최근 1년 연장됐다. 당초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코로나 19 여파로 내년 2월로 연기되

면서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임기가 연장됐다는 분석이다. 김 대표 이사는 3년 임기로 지난 2017년 7월에 대표이사로 임명됐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문화기관 수장 공모 등과 관련해 흑역 줄 세우기나 불공정 심사 등 기존의 병폐가 되풀이된다면 생산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과 대안 제시는 백년하청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비전과 인재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원순 시장 영결식...고향 창녕에 안장 피해자측 사건 진상 규명 요구 기자회견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에서 열렸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더불어인 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다. 장례위원회는 영결식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시신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했다. 박 시장 유해는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 경남 창녕 생가 인근에 있는 부모 합장묘 옆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됐다.

박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박 시장 공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조문 정국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라며 "이 후보의 대세론 속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 것인가가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실 등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정의를 해줄 때까지 믿음을 갖고 용기를 내 고소했으나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사과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시장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A씨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서신에서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했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 두 글자는 내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 새겨진 문양이 되었고, 박 시장이 음란문자와 속옷만 입은 사진을 장기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

조문 정국 마무리...이낙연·김부겸 당권 레이스 재개

"물러나도 책임" vs "땀땀식 논리"
내년 4월 재보선 역할론 쟁점

경전도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로 재보선 판이 미니 대선급으로 커지면서 차기 당 대표의 재보선 역할론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할론은 당 대표의 임기 문제와 맞닿아 있다. 차기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내년 3월 초 중도사퇴할 경우 '대표 권위' 상태에서 4월 재보선을 치르거나, 임시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당 일각에서는 차기 당 대표가 3월에 사퇴할 경우 2월 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 공백이 없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벌써 나온다. 이 의원 측에서는 당 대표가 돼서 중도사

퇴하더라도 내년 2월 당의 재보선 후보를 공천한 이후여서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대표에서 물러나도 재보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 같은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당 대표가 되면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공언한 김 전 의원 측은 "재보선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당 대표를 사퇴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라며 "공천은 해놓고 선거 관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라던 임기를 채우는 게 정상이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땀땀식'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성추행 의혹 속에 치러지게 되면서 당 대표 후보들이 자당 후보 공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조문 정국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이라며 "이 후보의 대세론 속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치고 올라갈 것인가가 주목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